영국 오프컴, 2.3 & 3.4 GHz 대역 주파수 경매 추진

2013.11.06

□개요

○ 2013년 9월 17일,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(ofcom: office of communication)은 2.3 & 3.4 때 대역에 대한 주파수 경매 실시 계획을 발표함

□ 주요내용

- 2.3 & 3.4 ₪ 대역은 기존 영국 국용 주파수로 사용되었으나, 영국 정부는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주파수를 민간용으로 할당할 것을 결정함
- 세부 경매 대상 주파수 대역은 2,350~2390 Mb와 3,410~3,600 Mb 대역 총 190 Mb 폭이며 2016년 내로 오프컴 주관하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
- 현 계획에 대해 영국 내 RSGB(Radio Society of Great Britain)는 본 대역을 아마추어 무선용으로 사용을 주장하나, 오프컴은 규모의 경제 원칙에 따라 IMT용으로 주파수 경매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

□ 향후 전망 및 시사점

- 급격히 증가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 효율 개선 등의 기술 향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, 근본적으로 더 많은 주파수 대역폭의 할당이 필요함
- 이미 낮은 대역의 주파수는 여러 서비스로 할당되어 혼잡한 상태이기 때문에, 혼잡도가 덜하고 높은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고주파 대역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
 - ▷ 본 자료의 게시처 : TTA 홈페이지 > 자료마당 > TTA간행물 > 해외표준화기구동향